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PASTORAL CENTER

주임신부 : 안기민 사도요한 510-562-3843

평협회장 : 최대연 다니엘 오일공-이팔돌-이오팔공

선종회장 : 채성일 토마스 오일공-오팔구-삼삼일일

2024년 공동체 사목방향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희망의 공동체      하느님 안에서 배려하는 공동체      기도로 하나되는 공동체

(자) 대림 제3주일(자선 주일)      2024년 12월 15일 (제2112호)

사무실: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TEL 510-553-9434  
근무시간: 토/일(8am~4pm)

E-mail: standrewoak@gmail.com  
홈페이지: [WWW.OAKCC.ORG](http://WWW.OAKCC.ORG)

주일 학교	주일 오전 10시 30분 교육관	
한국 학교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예비자교리	주일 오전 10시 교육관 106호	
신심단체	레지오마리아	주일 오전 9시 30분~10시 30분
	성령기도회	토요일 오전 9시
	향심기도회	월요일 저녁 7시30분 온라인
성시간	첫 목요일 저녁 미사 후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시 / 11시
	평일 미사	화·목    오후 7시 30분 수·금(대건회관)·토 오전 11시
성사	고해성사	미사 30분 전
	병자성사	사무실/주임신부님 상시 신청
	혼배성사	사무실 신청
유아세례	사무실 상시 신청	
환자봉성체	매월 첫째 주	

제1독서    스바니아 3,14-18  
화답송

- ◎ 기뻐하며 외쳐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 “보라, 내 구원의 하느님. 나는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굳셈. 나를 구원해 주셨네.”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길으리라. ◎
-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 이름 높이 불러라. 그분 업적을 민족들에게 알리고, 높으신 그 이름을 선포하여라. ◎
- 위업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이 하신 일 온 세상에 알려라. 시온 사람들아, 기뻐하며 외쳐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

제2독서    필리 4,4-7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 ◎ 알렐루야.

복음    루카 3,10-18  
영성체송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힘을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우리 하느님이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성가]	8시	입당	88	봉헌	254	성체	169	파견	89
	11시	입당	94(3,4절)	봉헌	340	성체	170,198	파견	89
대림 제3주일	12월 15일(주일)		12월 17일(화)	12월 18일(수)	12월 19일(목)	12월 20일(금)	12월 21일(토)		
	8시미사	교중미사							
미사해설	황혜정 데레사	채성일 토마스	정미경 말가리다	이명련 파트리샤	장희숙 루시아	이명련 파트리샤	안나 요아킴회		
독서	정기환 레안델 정미경 말가리다	김학철 요한 황선희 세실리아	정기환 레안델	윤춘주 세레나	이기자 요안나	이명란 아네스	안나 요아킴회		
제의방	이선미 에스터	허홍숙 세실리아	윤춘주 세레나	윤춘주 세레나	장희숙 루시아	정인경 가브리엘라	허홍숙 세실리아		

■ 12월 대림시기

- 대림시기는 '주님 성탄 대축일' 전의 4주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리는 주님 성탄 대축일을 준비 하면서 다시 오실 구세주를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 성탄미사 및 행사 안내

▶ 12월 24일(화)

-오후 4시: 레지오 연차총친목회 및 구역 장기자랑 (복권추첨이 있습니다.)

-오후 6시: 성탄 저녁식사

- 오후 6:50: 성탄 음악제(성당)

-오후 7시 30분: 성탄 밤미사

\*구역경배 때에 구유예물이 있습니다.

▶ 12월 25일(수)

-오전 8시 미사

-11시 교중미사

\*미사 후에 각 가정에 본당 선물이 있습니다. 당일에만 드립니다.

■ 성탄 판공성사

- 판공성사는 매 미사 30분 전에 있습니다.

- 판공표는 지정된 곳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 손님 신부님 판공성사 : 12월 15일(일), 오전 10시부터

예수회 정홍철 아우구스티노 신부님

■ 성탄 선물 나눔

- 어려운 이웃들과 성탄 선물 나눔을 원하시는 분은 제단 위 성탄트리 밑에 선물을 두시면 성탄절 즈음에 홈리스 분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 선물 내역 : 양말, 모자, 목도리, 장갑, 핫팩, 건전지,

담요, 초코렛 만을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장하지 않으시면 더 좋습니다. 추후에 포함합니다.

-12월 21일 오후 2시-선물 포장. 선물 포장을 도와주실 분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 토요일 미사전례 - 12월 20일(토), 만나 요아킴회

■ 12월 성경 통독 - 에페소 1:1~3:21

■ 유아세례 신청 받습니다.

- 12월 22일 까지 사무실

- 세례식 : 12월 25일 교중 미사 중

■ 2024년 송년미사

-일시:12월 31일(화), 오후 7시 30분 미사

-미사 후에 간단한 다과회가 있습니다.

■ 공동체 기도 지향

박영자마리아, 조상희마리아, 정화봉로사, 정연중비오, 최라파엘, 전옥분크리스티나, 황정숙말피나, 권주선다니엘, 천혜수아네스, 브루사론조발바라, 박숙모아네스, 박인규시몬, 이은자마트로나, 손한석가브리엘, 김정희울리엠타, 김옥자마리아, 박진영베드로, 이영아아나스타시아, 임희숙세트리다, 장민우, 유낙양베로니카, 이줄리울리안나, 조지현안젤라, 강시구안드레아, 김영자세실리아

■ 모임 및 회의

- 샌리앤드로 : 12/15(일) 교육관 107호

- 오클랜드 : 12/28(토) 오후 4시 교육관 107호

■ 연도안내

- 오늘 교중미사 후에 최사무엘/벨라데따

가정 고 최일선마리아(5주기) 영혼을 위한 연도가 있습니다.

■ 밥나눔 안내

- 오늘 밥나눔은 최사무엘/벨라데따 가정에서 연도 후에 무료티켓 5장을 드립니다.

- 메뉴 : 새우딤섬(이아네스), 떡만둣국(이파트리사),

소고기배추된장국(박세실리아), 콩나물북어국(이마트로나),

육개장(콘트라코스타구역), 불고기(송아네스),

떡볶이, 아이스크림/과일(학부모회)

- 밥나눔을 원하시는 구역은 총구역장에게 연락주세요.

■ 한국학교 기금 모금함(성당 입구)

- 한국학교 발전을 위하여 많은 분이 관심과 사랑의 마음으로 한국학교를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2월 22일(일)에 한국학교 발전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청년회- 오늘 청년회가 대건관 4호실에서 있습니다.

■ 성탄 맞이 대청소가 12월 15일(일)에 있습니다.

■ 2025년도 교무금을 2025년 1월 말까지 책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025년도 공동체 사목방향

①**젊은이들**과 함께하는 희망의 공동체, ②하느님 안에서 배려하는 공동체 ③**기도로 하나되는** 공동체

■ 매일미사 책 값 인상

-2025년 1월부터 매일미사 출판사에서 책 값을 인상합니다. 매일미사 책 값은 한 권 당 10불입니다.

■ 어르신 휴대전화 사용 문의- 친교실 본당청년/하상회

■ 성당 내 안전 유의

① 성당 내 운전 5마일 이하

② 성당 의자/식탁 의자에 앉고 일어날 때 조심

③ 성당 주방은 봉사자 외에 출입금지

④ 성당 계단에 오르고 내릴 때 주의

■ 성당 청소 (매주 토 오후 12시)

- 문의 : 이덕용 대건안드레아(오일공 칠칠삼 사삼팔삼)

■ 빈첸시오회 지역사회 이웃돕기

- 문의 : 이영길 안드레아(오일공-이구이-오파일오)

☞ 감사합니다

- 지난주 본당에서 봉사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에드몬드(12/20): 조덕행

☞ 성당에 처음 오신 모든 분 환영합니다.

## 대림 제3주일

세례자 요한이 세례 운동을 벌이던 당시에, 요르단강에는 세례를 주던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대개는 물로 씻는 세례를 통해, 과거의 잘못을 씻도록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원할 때 필요한 만큼 반복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의 세례는 달랐습니다. 요한은 '죄'를 씻는 것보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요구했지요. 요한은 세례를 청하는 사람에게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찾아온 사람에게 일생에 단 한 번 세례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요한은 군중들에게 말했습니다. "옷을 두 벌 가진 사람도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루카 3,11) 요한은 세리들에게 말했습니다.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3,13) 요한은 군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여라."(3,14) 오늘의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이 가르침은, 당시에는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도 십일조나 제물을 충실히 바치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요한의 가르침은 그 시대 유다교 지도자들의 것과는 완전히 달랐지요. 그래서 어제의 사람들이 요한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큰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요한의 가르침이 전통과 영동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율법과 성전은 이스라엘 신앙을 이끌던 두 기둥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느님은 자신들을 돌보아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율법과 성전의 제물봉헌은, 그런 하느님을 기억하게 하고, 그런 하느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과 성전의 제물봉헌은 사람들을 나눔의 삶으로 이끌며, 하느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지침이었습니다.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있다면 나누어라.' '자신에게 주어진 몫보다 더 탐하지 마라.' 요한은 모두에게 '새로운 삶'을 요구했습니다만, 요한의 가르침은 이스라엘 전통이 간직해 온 정신을 당대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각색했습니다. 역설적입니다. 가장 전통적일 때, 가장 혁신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의 가르침에 큰 기대를 품었습니다.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획일적으로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모두에게 '새로운 삶'을 요구하되, 각자의 삶에 맞는 구체적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군중들에게는 '생존'과 직결되는 무엇을 두고, 적극적으로 나누라고 말합니다. 그는 옷 한 벌을 두고, 작은 빵조각을 두고 고군분투해온 사람들이, 살아남으려고 꼭 쥐고 있던 것들을 놓도록 이끌었습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보라고 시선을 돌립니다. 세리들에게는 '정해진 것만'을 요구하라 일렸습니다. 당시의 세리는 지금의 세무서 공무원같은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세금징수업자였는데요. 로마제국에게 세금징수권을 돈을 주고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징세권을 얻기 위해 세금보다 많은 돈을 제국에 바쳤기 때문에, 그들은 제국이 정한 세금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갈취하곤 했습니다.

군인들에게는 '봉급'만으로 만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고대의 기록(요세푸스 「유대전쟁사」)을 찾아보면, 당시의 군인들이 자주 범했던 잘못들이 언급됩니다. 도둑질, 강도질, 약탈 등, 그들은 사람들에게 해악을 입히고 이익을 취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는 직업을 바꾸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오직 '청렴'을 요구했지요.

인간의 역사는 짓밟고, 빼앗고, 죽이는 이야기로 가득하고, 우리 역시 그 굴레 안에 태어나 어느샌가 휩쓸려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대림 시기를 지내며, 2000년 전 요한의 외침을 되새기는 이유는 거기에 있겠지요. 요한의 가르침은 가장 전통적이기 때문에 가장 혁신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삶을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삶의 자리에 어울리는 상식적인 가르침을 줄 수 있었습니다.

요한이 제시한 새로운 삶의 이면에는, 그가 그리고 있는 하느님의 모습도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치우시어, 알곡은 당신의 공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 버리실 것이다."(3,17) 그의 가르침은 새로운 것이었습니다만, 그가 그려내는 하느님은 여전히 엄한 심판자였습니다. 요한의 말과 태도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삶의 이유가 하느님의 엄한 심판이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지옥이 두려워 천국으로 도망가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움'과 '기다림'의 대림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워하고 또 기다리는 예수님도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하느님을 엄한 심판자가 아니라 자비로운 아버지로 그려내셨습니다. 신앙은 두려움에 떨면서 지키거나 바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신앙은 기쁘게 베풀고 나누는 삶으로 실천됩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자비를 살며, 자비로운 하느님을 닮아가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가톨릭신문 2024. 12.15]

### ■ 미사참례인원 / 지난 주 정성

<b>미 사 시 간</b>		<b>8시</b>	<b>11시</b>	<b>총</b>						
<b>미사참례인원</b>		39명	156명	195명						
<b>주일헌금</b>		<b>2차헌금</b>		<b>교무금</b>	<b>Bishop's Appeal</b>	<b>감사헌금</b>	<b>성소</b>	<b>빈첸시오</b>	<b>선교</b>	<b>황금빛</b>
<b>8시</b>	<b>교중미사</b>	<b>8시미사</b>	<b>교중미사</b>							
[교무금] 원광희(9-12), 최몽렬(12), 주정희(1-12/25), 김영순(1-12/25), 강성진(9-12), 김정임(7-12), 이정연(12) 차영화(11-12), 박민자(7-12), 황정숙(6-12), 양우선(11-12), 이소지(7-12), 임석호(9-12), 송인환(8-9) 최윤기(12), 임장만(9-12), 조신원(12), 김영길(12), 전문자(12), 유윤미(12), 추해성(10-12), 임희숙(10-12)		원광희	조덕행	원광희	이소지					
		주정희	최윤기	최윤기	최윤기	최윤기	최윤기	최윤기	최윤기	

**+ 미사지향**

날 짜		지 향	봉 헌 자	날 짜		지 향	봉 헌 자
12/15(일)	연	이원진 야고보	가족	12/15(일)	생	안기민 사도요한 신부님	김베드로 가정
	연	전안드레아/정시몬	전마리나 /아네스		생	장민우	이마트로나
	연	주봉진 요셉	주정희 마리아		생	유혜선 마리아	엠포트리샤
	연	정대업 벤자민	정혜경 데레사				
	연	김형준 시몬	가족				
	연	이호순 마리아	이에스터				
	연	김지성 에드워드	김케넷가족				
	연	조숙자 바울라	조진행 바실리오				
	연	김마르코	가족	12/17(화)	연	최정자 쟈마	이동재 안토니오
	연	최순일 요셉	순배 수산나		연	이원진 야고보	가족
	연	김창훈	김옥희 헬레나		생	이은자 마트로나	익명
	연	박영자 클라라	이수나 유스티나		생	이경희 미카엘라	이범준 요셉가정
	연	부홍신 마티아	부건화 요셉		생	김교은 비아	탈출기 주일반
	연	이동준 바오로	부건화 요셉				
	연	서데레사/ 정요셉	정베드로				
	연	홍모니카/ 김요한	정분다	12/18(수)	연	윤천호 바오로	윤세레나
	연	최일선 마리아	최사무엘/벨라데따		생	김교은 비아	탈출기 주일반
	연	최일선 마리아	라스모어 라모린다 구역		생	안기민 사도요한 신부님	김베드로 가정
	연	임봉윤/ 황쟁마	임희숙 세트리다				
	연	유승룡 베드로	임승주 안젤라	12/19(목)	연	장대식 바오로	장루시아
	연	유승직 하비에르	임승주 안젤라		연	이용 요셉	이소지 마리아
					연	한동설 안젤로	가족
12/15(일)	생	이은자 마트로나	익명		생	이은자 마트로나	지구네군다
	생	이은자 마트로나	임희숙 세트리다		생	이영아 아나스타시아	지영남 요한
	생	SOO ELLIOT	정혜경 데레사		생	이영문 루시아	김엘리사벳
	생	이안 프랭크	김쟁마		생	김교은 비아	탈출기 주일반
	생	윤지원 안젤라	윤루시아/ 루카				
	생	양안나	박세실리아				
	생	하숙연 베로니카	샌리앤드로 구역	12/20(금)			
	생	박영자 마리아	샌리앤드로 구역		생	김교은 비아	탈출기 주일반
	생	차아름 루시아	차리디아				
	생	팽현팔 하비에르	라스모어 라모린다구역				
	생	유낙양 베로니카	라스모어 라모린다구역	12/21(토)	연	주봉진 요셉	주정희 마리아
	생	박호영 헬레나	이베로니카		연	전안드레아/정야고보	전알렉산델/스텔라
	생	이베드로/아나스타시아	이베로니카		연	이원진 야고보	가족
	생	권선 클라라	이베로니카		연	유춘성 데레사	가족
	생	조지현 안젤라	최영자 세레나		생	이은자 마트로나	익명
	생	김교은 비아	탈출기 주일반		생	장민우	송아네스
	생	김광석 베드로 가정	주일 밥나눔		생	김교은 비아	탈출기 주일반

<p><b>대 건 한 의 원</b>  <b>한의학박사 이 준</b>          침·한약·체중조절·통증조절·체질감별          401 Roland Way #225 Oakland          (510)444-1010</p>	<p><b>조미정 공인회계사</b>  <b>세금보고 및 회계감사</b>  <b>Business Consulting</b>          ☎ (925)803-0200          Fax (925)803-0204</p>	<p><b>김수정 부동산</b>  <b>김수정 나탈리아</b>  <b>Keller Williams</b>  <b>DRE 02049482</b>          ☎ (925)416-9249          julia.kim@kw.com</p>	<p><b>폴킴 &amp; 김영선 안젤라부동산</b>          주택/다세대 아파트/커머셜          ☎ (510)847-5837/418-0358          DRE #01851957 #01036902          paulkimhomes@gmail.com  <b>LEGACY Real estate &amp; Associates</b></p>
--	---	--	--